1. **새소망의 달: 12**월은 새소망의 달입니다.
2. **추계부흥회 감사:** 접대와 안내,차량으로 봉사하신 성도여러분들과 참여하여 은혜를 사모하신 성도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 **헌신예배:** 오늘 오후예배는 2010년 새기관장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새기관장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도님들은 참여하여 은혜 받읍시다.
4. **부지헌금작정:** 2010년-2014년까지 5년에 걸쳐 전체 성도가 각자의 형편과 감동에 따라 헌금을 작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책당회:** 2009년도 정책당회를 18일(금)오후6시부터 19일(토)오전9시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6. **공동의회소집:** 오는 20일(주)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7. **외국인근로자 성탄축하행사:** 오는 20일(주) 오후4시-6시까지 외국인근로자 성탄축하행사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행사 후 6시에 저녁식사가 있습니다.
   ➢약300여명 참석예정입니다. 접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1인1식 5천원입니다. 협찬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 국회의원(김동철, 이용섭), 구청장(전갑길), 시의원(유재신)등 다수의 기관장이 참석예정입니다.
   ➢여전도회연합회는 식사접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성탄축하의 밤:** 주일학교기관과 남녀전도회기관은 24일(목) 밤에 있을 성탄 축하의 밤 행사에 준비하여 모두 참여바랍니다.
9. **성탄준비위원회:** 오후예배후 성탄준비위원들은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준호, 부:김기태, 옥룡, 이동만, 진영만, 곽세종장로, 유영만집사
10. **TV설교:** 담임목사님 주일낮 설교가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기독교방송 TV강단 시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유선채널- 74번, 42번).
    라디오방송은 매주 화요일 새벽5시35분 FM 103.1에서 방송됩니다. 시청바랍니다.
11. **주일점심:** 오늘 점심은 송희종 장로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십니다.
    ➢다음주는 옥 룡 장로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시겠습니다.
12. **각반 성경공부:** 각반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중직자들과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바랍니다.
13. **금요기도회:** 18일 금요기도회는 남전도회연합회 주관으로 모입니다(저녁8시).
    ➢기도는 영육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합시다.
14. **하루 교회숙직제 실시:** 계속하여 숙직제도를 시행 일자별로 정했습니다.
    ➢각자 차질이 없도록 실시바랍니다(1층 접견실 및 기도굴에 온열난방 설치).
    ➢금주담당자: 김순심, 김용덕, 유양덕, 김정숙, 손종기, 최지혁, 문종승
15. **자원서:** 나누어드린 자원서에 2010년 일할 부서를 선택하셔서 제출바랍니다.
16. **전기관전도:** 각 기관은 교회주변전도와 결석자 회원을 심방하시기 바랍니다.
17. **축결혼:** 오는 19일(토) 오후1시30분 상무지구 예술의전당 2층 로즈마리홀에서 임순분집사(김승재) 장녀 김유진 양의 결혼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18. **당회장동정:** 당회장 손종기목사님은 14일(월)-17일(목)까지 기도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계획입니다. 성도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9. **주일심방:** 이현일 옥 룡장로, 김신자 서점순권사(환우, 낙심자 심방)입니다.
20. **입원성도:** 조대병원(김달삼집사, 조춘자집사, 최봉주성도) 호남병원(정천호성도) 정하섭장로-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교회설립 1992.6.9 제18권 50호 2009. 12. 13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남은광교회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롬12:12)

새기관장 헌신예배

담임 교역자
손 종 기 목사
(010-7283-8291)

12월은 새소망의 달

* 매주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TV 74,42) TV강단 주일낮 설교 방영
* 매주 화요일 새벽5:35-5:55 CBS라디오(FM103.1) "오늘을 보람 있게"
* http://www.hanamekch.com/ *E-mail: jkson9004@naver.com

✦시무장로: 이준호 김기태 정하섭 김문옥 김명관 이현일 김병엽 이동만 곽세종 송희종 옥 룡 김종칠 최상윤 김요상 김희중 진영만 김태석
✦은퇴장로: 윤 석
◈ 찬양위원장: 김문옥 ◈

【할렐루야성가대】
✦대장: 옥룡, 지휘:최재현(오광록)
✦반주: 곽지혜 · 이은혜

【마리아성가대】
✦대장: 김태석, 지휘: 김유영
✦반주: 전미영 · 계경숙

12/1-7	제122차 여리고작전 새벽기도회, 산상기도회
12/6	전기관 결석회원 심방
12/6-9	심령부흥사경회(윤광중목사-안양신일교회)
12/13	새기관장 헌신예배 전기관 결석회원 심방
12/20	정기교육위원회, 외국인근로자 성탄축하행사 공동의회, 전기관 결석회원 심방
12/24	성탄축하행사(24일), 성탄축하새벽찬양(25일)
12/25	성탄축하예배(25일)
12/27	주교졸업예배, 월례회
12/31	송구영신예배

✦교 회: 953-3983, 070-7430-3983,4 ✦서재: 070-7430-3985 ✦목사관: 962-3301
✦부목사: 최지혁 (010-3615-1638) ✦강도사: 문종승 (010-7617-4070) ✦전도사: 김성훈 (010-8327-7655) 서향임 (018-629-2785) 전순이 (010-2999-7540)
✦외국인근로자담임 석창원목사 (010-3604-8139)
✦하남은광홈스쿨: 강미순교육사 (955-8291)

506-055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319-14

주일 낮 예배

1부 8시30분 사회:손종기목사
2부 11시 설교:손종기목사

조용한준비 ···· 다같이(반주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의부름 ····· 사 회 자
*개회송영 ····· 성 가 대
*기 원 ····· 사 회 자
*찬 송 ·· 28 (통28) ·· 다같이
*성시교독 ··제 50 문·· 다 같 이
*사죄확신 ·····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 427 (통516) ·· 다같이
기 도 ····· 1부 옥 룡 장로
2부 이동만장로
성경봉독 ···· 말3:7-12(구1330)
찬 양 ····· 할렐루야성가대
말씀선포 ····· 손종기목사
"하늘 문을 열고 주신 복"
기 도 ····· 다 같 이
찬 송 ·· 436 (통493) ·· 다같이
봉 헌 ····· 다 같 이
감사기도 ····· 설 교 자
*주기도송 ····· 다 같 이
*축 도 ····· 손종기목사
교회소식 ····· 영상광고
새신자환영 ····· 다 같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제찬송 ·· 428(통488) ·· 다같이

- 서로 인사하며 교제 합시다 -

주일 오후 예배

[2010년 새기관장 헌신예배]

오후 2시30분
사회: 이동만장로(남전도연합회장)
설교: 손종기 목사

열린찬양 / 쉴하쉬림 찬양단
대표기도 / 장현자권사(여전도연합회장)
성경봉독 / 행21:8-14(신225)
특 송 / 새기관장 일동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가장 신실한 주의 종"
찬 송 / 303(통403) / 다같이
교회소식 / 영상광고
축 도 / 손종기 목사

-주일밤 성경통독-
오후7시~8시(로마서)

삼일기도예배

저녁 7시30분 사회:조선경 권사
설교:최지혁부목사

찬 송 / 288(통204) / 다같이
대표기도 / 장현자 권사
성경봉독 / 엡 4:11-16(신313)
특 송 / 제7구역원 일동
말씀선포 / 최지혁 부목사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
헌금기도 / 292(통415) / 김희중장로
광고축도 / 설교자

새벽 5:00 인도: 손종기 목사

12 월 헌금위원 및 안내위원

헌금	1부	장기술
	2부	김종칠 박의하 장승준
안내	조윤기 서진욱 박동수 이건욱 김준명 박종관 김영산 조선경 문채숙 김숙자 김숙경 권화숙 김순심 김점덕 서정옥 송숙란 신은숙 양선숙 우숙희 이현순 정순영 전윤선 계경숙 양재숙 강춘자 정영옥 김혜경 김혜진 양순옥 정영순	

다음주 봉사자

다음주일 낮기도: ◆1부 송희종 장로
◆2부 곽세종 장로
다음주일오후기도: 김명관 장로
다음삼일사회특송: 박의하집사(8구역)
다음주삼일밤기도: 조선경 권사
금주 12/19(토)청소: 1남전도회,한나
이번주(13)식사당번: 7, 8, 9 구역
다음주(20)식사당번: 10,11,12 구역

지난주 구역예배 보고

지구장	구역	모인곳	인원	헌금	성경	다음장소	구역장	전 화	우리는 돕는 선교사
제1지구장 이준호장로	1	정은섭	11	15000		김부현	김요상	954-3319	남도시민교회/5만
	2	황숙희	3	6000	93	양혜숙	양혜숙	951-2437	곡성교회/15만
	3	송희종	4	4000		계경숙	송희종	953-7579	서부은광교회/5만
제2지구장 김기태장로	4	김태석					김태석	434-2827	나주신광교회/5만
	5	김달삼	3				이현일	952-5880	서림교회/5만
	6	유양덕	6	11000	20	김영례	이동만	953-0774	겸면중앙교회/5만
제3지구장 정하섭장로	7	윤경순	4	8000		조선경	조선경	952-1672	심미교회/5만
	8	박의하	5	5000		유길남	박의하	954-4684	광덕교회/5만
	9	양재숙	4	5000		김득자	진영만	434-2902	연화교회/5만
제4지구장 김문옥장로	10	공점례	4	5000		이길례	신애란	452-2038	장산중앙교회/5만
	11	전윤선	6	19000	50	황생자	최상윤	384-8475	연동은광교회/5만
	12	권화숙	12	13000		김담호	손문옥	962-6487	운남평화교회/5만
제5지구장 김명관장로	13	김정자	9	10000	170	김천대	김숙경	956-5064	구름다리교회/5만
	14	윤정희	4	6000	25	김길순	서향임	951-2785	경동교회/5만
	15	박영애	3	4000		현민희	최옥기	955-8951	금호동교회/5만
제6지구장 이현일장로	16	교 회	3	4000		전순이	김숙자	447-5214	영광교회/5만
	17	이봉순	5	12000		서정옥	조윤기	954-3784	장흥용산중앙/5만
	18	옥 룡	2	2000		임춘진	옥 룡	430-2360	노력도교회/5만
제7지구장 이동만장로	19	김기태	2	2000		박경남	김기태	952-8667	문일환 목사/5만
	20	이준호	3	3000		김홍순	이준호	952-8590	세계포도원교회/5만
	21	한만희	7	8000		채은정	한만희	956-0484	삼기중앙교회/5만
제8지구장 곽세종장로	22	장현자	4	4000		고진희	김문옥	954-2660	남악신광교회/20만
	23	이가영	3	6000		오금례	나오임	070-7522-8550	군선교연합/5만
	24	전오례	5	8000		이복남	김종칠	953-9917	반석교회/5만
제9지구장 송희종장로	25	김은경	5	5000		이종순	서점순	961-8640	오치은광교회/10만
	26	송병기	7	7000	36	전현정	안영철	01050437055	기독교 방송국/15만
	27	이영희	3	5000		손우정	손종기	962-3301	기독교 방송국/15만
제10지구장 옥 룡장로	28	교 회	5	5000			서진욱	413-5357	중도실명자 선교회/5만
	28/1	허성복	4	8000		조복임	전순이	01029997540	중도실명자 선교회/5만
	29	김막녀	3	6000		오순애	김성훈	952-3304	
	30	안수집사회				안수집사	조윤기	954-3784	
제11지구장 김종칠장로	31	권사회				권사회	이정자	952-9380	
	32	중등부				중등부	양지수	431-1198	선교사들을 위해
	33	고등부				고등부	이지훈	962-7727	기도와
제12지구장 손종기목사	34	은광·아남				어린이집	임현옥	954-2360	물질로!
	35	대학부				대학부	진근모	01036852902	
	36	청년회				청년회	이현복	0116066073	우리는
제13지구장 최지혁부목사	37	백두산업				백두산업	양순희	055)964-1412	보내는 선교사
	38	영연스쿨				영연스쿨	방정원	954-2787	
	39	교 회	6	8000	120	교역자	최지혁	385-1320	

구역공과

성도와 직분 여섯째마당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

고린도전서 4:1-2 / 찬송 310, 321 장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는 자의식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에게 걸맞게 살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자신이 직분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직분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임무를 맡은 자는 그 임무를 맡긴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신분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분자로서 맡은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써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 직분자는 모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고전4:1상).

임무를 맡은 자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임무를 맡긴 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대통령의 사절단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자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직분자로 부르시고 임무를 맡긴 분에게 자신의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직분자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 자신을 파송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직분자는 자신이 증거해야 할 분, 자신을 직분자로 파송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증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2. 직분자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고전4:1하).

직분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분자로 부르시고 파송하신 자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동시에 직분자의 중요성은 직분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임무에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어떤 임무가 맡겨져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성경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비밀'은 '감춘다', '닫는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비록 비밀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경건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직분자가 맡은 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배우고, 이 비밀을 밝히드러내며,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임무인 것입니다.

3. 비밀을 맡은 직분자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고전4:2).

세상의 나라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주군을 섬기는 자들을 보고 충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충성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평가되든지 간에 그들의 충성심만큼은 몇 번이고 회자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무를 맡은 직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충성입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토스'인데 '진리를 파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자는 바로 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굳게 파수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설교요약

하늘 문을 열고 주신 복(말3:7-12)

십일조를 신실하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끼시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본문은 십일조의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배후에 깔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바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풍성한 축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는 단순한 조건적 축복으로 이해되어 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경건하고 진실 된 경배의 자세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불경과 불의를 책망 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주신 복을 받을 자는 신앙의 바른 자세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하늘 문을 열고 주신 복을 받을 자는 신앙의 바른 자세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학 2:7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난 뒤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였고(2:7),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탄식하며 슬퍼하였습니다.(3:14). 백성들의 태도가 이러하였기에 자연히 그들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물도 온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먼 양과 저는 양과 병든 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1:8). 그들은 온전한 십일조를 바치지 않고 적당량만을 십일조라 하여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십일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2. 하늘 문을 열고 주신 복을 받을 자는 십일조의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십일조의 기본 정신은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정신이며 둘째,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해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이러한 정신을 잊어버리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적당히 눈가림만 하는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3. 하늘 문을 열고 주신 복을 받을 자는 죄를 떠나야 합니다.

8, 9절을 보면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십분의 일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십분의 구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4. 하늘 문을 열고 주신 복을 받을 자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어야합니다.

본문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은 십일조가 거의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제사가 무시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면 엄청난 축복을 누릴 터인데 왜 하나님의 십일조를 도적질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느냐는 안타까운 외침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아낌없이 축복하시겠다는 조건을 걸고서까지 자기 백성들의 온전한 십일조 생활, 즉 바른 신앙생활을 권고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맺는 말

1.하늘 문을 열고 주신 복을 받을 자는 신앙의 바른 자세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2.하늘 문을 열고 주신 복을 받을 자는 십일조의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3. 하늘 문을 열고 주신 복을 받을 자는 죄를 떠나야 합니다.
4.하늘 문을 열고 주신 복을 받을 자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어야합니다.

십일조는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또한 완전해야 하는데 곧 반쪽 예배, 일부분에 그치는 예배는 하나님께 열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예배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열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어야합니다.

목회칼럼

우리함께 힘을 모읍시다(1).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습니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영하의 온도에서도 그 매운 맛과 향기를 지니며 봄을 기다립니다. 하남은광교회를 개척하여 달려온 18년의 세월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성품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함께 일하도록 붙여주셔서 은혜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세계금융위기의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던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 하남은광교회를 품에 안아주시고 평온가운데 부흥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2010년도 1월 ~ 2014년도 12월까지 만 5년의 시무기간을 남겨놓은 은퇴를 준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도 여러분들께 자신이 갖고 있는 향후 목회계획과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마인드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지면관계로 자세히는 밝혀드릴 수 없을지라도 대강은 말씀드리는 것이 저에게도 다짐이 될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협력과 기도를 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5년의 기간을 어떻게 목회를 아름답게 마무리 할까하는 생각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생각되는 것이 교회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인한 부채청산 이었습니다. 전체 부채가 7억여원정도입니다. 이 부채를 지금까지는 매월 200만원씩 상환하여 매월 400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성공적인 목회 마무리는 이 부채를 가장 효율적이며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청산하기 위하여 전체성도가 5년 불입 적금제 헌금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당회에서는 전체당회원이 지난 8월30일 합의하여 부채청산을 위한 토론 후 1억 5천 800만원을 작정 결의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5억 4천 200만원을 전체 성도님과 기관이 합심하여 작정 불입하도록 분담해 주어야할 것입니다. 그 사례를 들면 매월 1,650원을 작정하시면 5년 후에는 10만원을 헌금하게 됩니다. 매월 16,500원을 작정하면 5년 후에는 100만원을 헌금하게 됩니다. 매월 165,000원을 작정하면 5년 후에는 1000만원을 헌금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묶 돈을 헌금할 수 없으나 매월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적금형 헌금을 드리면 나중에는 큰 묶 돈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개미 군단식 협력이 있어야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교회가 성장할 것이며 개인적으로도 귀한 정성을 드림으로 복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도 6억여 원의 예배당 건축부채를 이와 같은 적금형 헌금을 통하여 성도들이 참여했고 부채를 청산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헌금에 동참한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그때 어려웠지만 참여하였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채를 위한 적금식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월400여만 원의 이자 부담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역자를 한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게 되어야만 우리 하남은광 교회는 제2의 도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성을 모은 것과 몇몇 소수의 사람이 부담을 한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2010년 도 첫 주일부터 시작한 아름다운 정성이 주차장 부지 매입 부채청산은 물론 향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복 주시는 교회로 우리 하남은광 교회가 우뚝 서서 영혼구원에 적극적으로 힘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천 구년도 십이월 십삼일
담임목사 손 종기

시간의 승리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시간이라 했던가. 아무리 빠른 것도 시간을 추월할 수 없으니 맞는 말이다. 한 해가 저문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보람에 감사하고 실패에 반성해야 할 시간이다. 가장 큰 실패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평소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잃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33세에 결핵에 걸려 15년 뒤에는 한쪽 폐를 잘라내야 했지만 66세까지 쉬지 않고 집필하고 강의하며 분투했다. 그는 임종 시에 "나의 최선을 다했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우리 시대 최고 지성 이어령 박사는 집필 생활 50년에 무려 150여 권의 저서를 내고 최근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했다. 시간의 승리자가 거둔 감동적인 결산이다. 영생을 주시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안에 영원한 시간이 있다. 세월을 아끼자(엡5:16).

현신애 권사의 눈물

수십 년 전 시골에서 목회를 하던 어느 날 한꺼번에 10여명의 대가족이 믿겠다고 찾아왔다. 한 명이라도 더 오길 목을 빼고 기다리던 때이니 기쁨이 컸다.

그러나 큰 부담이었다. 맏아들의 정신이상을 고쳐주면 계속 나오겠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은 우리 교인뿐 아니라 좁은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목이 쉬도록 이 정신이상 청년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기도했다. 낫기만 하면 교회 부흥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에 더욱 크게 기도를 했다. 그러나 아무리해도 낫지 않고 오히려 발작이 더 심했다.

그때 어느 친구가 전국 순회를 하며 병을 고치는 대구의 현신애 권사 제단을 소개하기에 이 청년을 거기에 데리고 갔다.

환자들 앞에 선 현 권사님은 낯선 환자들을 보더니 불쌍해서 계속 우시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환자를 이용해 교인 수를 늘리는 데만 관심을 두고 그 귀한 청년을 두고 울지 못한 죄를 회개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눈물을 흘리셨다(요11:35).

향기로운 예물

● 십 일 조

교 역 자 : 최지혁 전순이
장　　로 : 김명관 진영만 이준호 송희종 김문옥
안수집사 :
권　　사 : 전향님 김막녀 김숙경 김복희 문채숙 모순자 유금례 유양덕 이정자 양순희
집　　사 : 임연옥 손상원 김영례 오영자 허성복 이병육 이금동 최경순 황애자 유수종
　　김순자 양선숙 계경숙 황숙희 윤경순 김판심 오수미 김선애
♡♡♡♡ : 김유연 이영선 김　범

● 감사헌금

교 역 자 : 최지혁 전순이
장　　로 : 옥　룡 정하섭 김병엽
안수집사 : 최재현 이병권
권　　사 : 권화숙 유금례 유양덕 박경남 김숙자
집　　사 : 김변순 박종삼 황숙희 강춘자 손상원 손우정 오금례 박은원 민찬임 우숙희
　　김　호 김인숙 김영월 한정자 김경애 김판심 박종관 김민옥 김성수
♡♡♡♡ : 윤정욱 임명자 김　범 이성노 김광수 조병규 박성구 김민균 이영현 정해정
　　옥승주 조리라 전경순 노병호 김일섭 무명7

● 선교헌금

교 역 자 : 최지혁
장　　로 : 송희종 김문옥
안수집사 :
권　　사 : 김복희 권화숙 문채숙 김홍순 유금례
집　　사 : 김인숙 김　호 손상원 조정화 오영자 한정자 황두연 김영숙
♡♡♡♡ : 아브라함

● 복지헌금

송희종 아브라함 제5여

● 일천번제 · 건축 · 생일 · 차량

김재한 최순희 김숙경 조윤기 이정자 김천대 송희종 김영월 이재연 이재성 박점순
김종칠 김민균 양선숙 최선규 황숙희

100가지 기도응답의 비결

71. 기도의 회상자가 되기보다는 기도의 실행자가 되십시오.
현재의 기도생활이 없으면 과거의 기도 생활은 꺼진 향불과 같은 것입니다.

72. 기도로 매일 매일 하나님과 사랑의 터치를 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은혜로 사는 비결입니다.

73. 언제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찾아 과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시1편).

74. 기도는 숙달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폭포수와 같은 열렬하게 쏟아지는 기도의 세계를 지녔다 하더라도 오늘 그 세계가 저절로 유지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잘못 관리하면 오늘은 완전히 절벽 앞에 선 느낌을 받으며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5.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특징은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76.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심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77.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78. 승리를 확신하여 기도하십시오.
구약성경의 갈렙은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79.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추적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80. 기도는 물대는(watering)작업입니다.
물댄 곳에서 왕성한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듯 기도하는 자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제3차 2010년 교회지킴이 숙직제 순서 ★

순번	일자	성명	비고	순번	일자	성명	비고
1	12/17일	손종기	010-7283-8291	37	22일	박동수	010-5602-7559
2	18일	최지혁	010-3615-1638	38	23일	김용신	010-3008-6567
3	19일	김성훈	010-3827-7655	39	24일	이귀님	062) 952-8590
4	20일	문종승	010-7617-4070	40	25일	임춘진	011-604-8516
5	21일	서향임	018-629-2785	41	26일	김신자	010-7752-8667
6	22일	전순이	010-2999-7540	42	27일	서금자	016-9225-2602
7	23일	이준호	062) 952-8590	43	28일	모순자	010-6610-5880
8	24일	김기태	010-4633-8667	44	29일	최옥기	010-4323-7101
9	25일	김문옥	010-2565-2602	45	30일	유금례	010-9455-9579
10	26일	김명관	011-640-9608	46	31일	이봉순	016-9601-3784
11	27일	이현일	011-625-6945	47	2/1일	황정선	016-640-9608
12	28일	이동만	011-609-0774	48	2일	임현옥	010-3907-2360
13	29일	곽세종	011-9607-9883	49	3일	장현자	010-3114-9886
14	30일	송희종	010-4370-7579	50	4일	조선경	010-5469-1670
15	31일	옥 룡	011-616-2360	51	5일	김복희	010-2622-9919
16	1/1일	김종칠	010-7735-9917	52	6일	이난순	010-6310-2827
17	2일	최상윤	010-5059-8475	53	7일	박미정	010-3619-0362
18	3일	김요상	011-602-0724	54	8일	이정자	010-5509-0809
19	4일	김희중	010-5468-1670	55	9일	서점순	010-8944-8640
20	5일	진영만	010-605-2902	56	10일	김숙자	010-2360-5214
21	6일	김태석	010-8777-2827	57	11일	김동해	019-406-2586
22	7일	오광록	010-7603-9851	58	12일	방정원	010-9474-2787
23	8일	유영만	010-3629-3477	59	13일	진윤희	010-7488-9851
24	9일	김영근	011-638-1538	60	14일	장미옥	010-7704-9917
25	10일	한만희	011-9739-0484	61	15일	문채숙	010-5643-0198
26	11일	손문옥	011-9606-6487	62	16일	양혜숙	010-6873-2437
27	12일	조윤기	016-681-3784	63	17일	김점자	010-6653-0559
28	13일	한경택	011-633-7200	64	18일	김숙경	010-8245-5064
29	14일	장기술	011-9604-0577	65	19일	허경자	011-9607-8475
30	15일	최재현	010-6231-4589	66	20일	방봉순	011-605-3310
31	16일	박의하	010-2231-4684	67	21일	황생자	010-9877-1729
32	17일	장승준	010-6609-2782	68	22일	권화숙	010-7708-4315
33	18일	이대남	010-2615-5064	69	12/13일	김순심	010-7721-3238
34	19일	김재한	011-617-0571	70	14일	김용덕	010-2636-2114
35	20일	서진욱	010-5446-5357	71	15일	유얌덕	010-5339-1831
36	21일	이병권	010-6203-8640	72	16일	김정숙	010-2467-2113

※ 당일 숙직자는 다음날 숙직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를 위해서 기도(기도문), *교회 상황 점검, *교회 문단속

12월18일 금요기도회(남전도회 연합회)

기도의 무기는 승리와 패배 사이를 갈리게 합니다. 최고의 갑주를 입고 강한 의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무시하면 틀림없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마치 이는 작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싸우는가? 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의 승리를 이룹시다. ✠

찬양 및 합심기도	다 같 이
대 표 기 도	이 동 만 장 로
특 송	남전도회연합회일동
설 교	손 종 기 목 사
개 인 기 도	다 같 이

합 심 기 도 제 목		
교회	● 당회를 위해서(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 성도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소서	
회	● 2009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0년을 새로운 결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 2009년을 결산하고 2010년을 잘 준비하는 정책당회 되게 하소서	
기도 전도	● 항상 기도하는 성도되어 영적전쟁 승리하게 하소서 ● 가족과 이웃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되게 하소서	김희중 장로
개척	● 북한에 7개(신의주,평양,원산,함흥,청진,나진,고무산)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 인재, 물질, 지혜와 여건을 허락 하소서 ● 복지관 건립을 위해 지혜와 인재와 물질을 허락 하소서	서진욱 집사
직분	●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하게 하소서 ● 2010년 임원들이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소서	장기술 집사
교육 기관	● 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민족과 세계를 품는 아이들 되게 하소서 ● 시간을 정하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되게 하소서	박동수 집사
국가 선교	●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소서 ● 국가, 민족, 선교사,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합심기도
성도	● 병원입원성도, 군복무, 결혼준비, 취업준비, 타지역 생활자녀 위해 ● 행동으로 가족구원, 전도로 이웃구원, 헌신으로 민족구원, 풍성한 전도 열매 맺게 하소서,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소서.	